



■ 환율 급등·증시 폭락... 금융시장 '패닉'

한국경제 '9월 위기설' 커진다

달러 강세 ... 무역수지 누적적자 100억불 넘어 거시경제 '빨간불' ... 정부 대응책 마련 어려움

1일 국내 금융시장이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 등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 위기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청와대나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9월 금융위기설이 오히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환율 폭등, 주가 폭락 = 전문가들은 이날 환율급등을 달러화 강세와 주가 급락 등 대내·외 악재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환율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했

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달 무역적자가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아 연간 누적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선 점 역시 환율 급등에 일조했다.

외환당국의 개입 능력에 대한 의구심 역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파르게 추락해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요인으로 지난 주

말 미국증시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을 꼽았고 외국인 국내시장 이탈 가능성도 높아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도 '먹구름' =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의 여파로 거시경제 지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고유가 등 에너지 수입 품목의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무려 32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6월 '깜짝 흑자'에서 7월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자본수지도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는 바람에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유출 초과를 보였다.

이는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물론, 국내 소비자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물가는 3개월째 5% 이상 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내 경제성장률(GDP)은 지난 1·4분기 5.8%에서 2·4분기 4.8%로 급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9%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초비상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정부 대응책 고심 =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외환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대외 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풀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증권선물거래소 2008. 9. 1.	
KOSPI	KOSDAQ
1,414.43	439.20
(-59.81)	(-31.08)

폭락 증시 ... 손절매도 못하고 ... 투자자 '망연자실' 전문가도 '얼떨떨'

코스피지수가 1,400선 마저 위협받는 등 증시 폭락 여파로 주식과 펀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펀드매니저들조차 자신있게 지지선을 가늠하지 못한 채 알뜰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투자자들이 더욱 앓을 태우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증시 폭락의 여파로 펀드와 주식 투자자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펀드의 경우 이미 상당수 고객이 환매 타이밍을 놓친 데다 주식투자자들 역시 손절매를 포기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펀드는 이날 고객들의 환매 문의가 크게 늘었으나 대부분 크게 확대된 손실폭을 확인한 한 뒤 환매는 업무도 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또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주문도 뜸 끊겼다.

펀드매니저 등 증시 전문가들의 알뜰한 전망도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펀드매니저 등 증시 관계자들은 이날 증시가 '패닉'에 빠진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을 꼽았다.

대우증권 흥성국 리서치센터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자금 경쟁, 한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투매에 나선 것이 증시 폭락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장 펀드를 환매하기보다는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강신우 부사장은 "1,500선이 무너질 때 최대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향후 지지선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선 건디는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외채 증가 따른 위기 가능성 낮다"

재정부, 경제규모 확대 따른 일시적 현상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 "외채증가에 따른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향후 외채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외거래의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외채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개인의 대외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외채증가는 과거 외환위기와 달리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 성격이 지니고 있고, 6월말 현재 순채권은 27억달러지만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를 감안할 경우 순대외채권이 1억2천527억달러로 추정되며, 유동외채 비율 역시 외은지점의 외채를 제외

할 경우 54.4%에 그친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재정부는 "최근 경상수지·서비스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고유가 등 기존 상승요인에 글로벌 달러 강세까지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수출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향후에도 외환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무와 관련해 재정부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통일대비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07년 말 현재 국가재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2% 수준이다.

/연합뉴스



"발 디딜 틈 없네" 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08 인크루트 하반기 채용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이 강사의 하반기 채용상황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채용시장 어둡다

상장사 596곳 중 45.6%만 계획... 대기업 ↑ 중소기업 ↓ '양극화' 뚜렷

주요 상장사의 하반기 채용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기업간 채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1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사 596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에 채용을 나설 계획이 확정된 기업은 45.6%에 머물렀다. 이는 인크루트가 2003년부터 채용전망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이 34.7%로, 역대 2번째로 높아 그만큼 하반기 채용전망이 밝지 않았다. 채용에 나서는 대기업은 69.9%, 중견기업은 45.6%, 중소기업은 29.5%로 기업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채용을 확정된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모두 1만8천474명으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에 나서는 기업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에 비하면 그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다. 다만 대기업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2.7% 늘어나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10.8%, 36.0%로 감소할 것으로 집계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도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117명에서 올해 139명으로 증가하지만 중견기업은 29→26명, 중소기업은 25→13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석유화학과 식음료가 지난해보다 채용이 각각 19.5%, 17.3%로 크게 늘어나며 정보통신(6.0%),

금융(5.9%), 유통무역(2.7%) 등도 채용전망이 밝았다.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운수(-20.0%)와 자동차(-18.9%), 건설(-17.0%), 기계철강조선(-8.8%) 등은 채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규모는 전기·전자 3천945명으로 가장 많으며, 금융(2천985명)과 석유·화학(1천697명), 기계·철강·조선(1천589명), 식음료(1천513명) 등의 업종이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시기는 9월(48.6%)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1.8%)과 11월(6.2%)에 뽑겠다는 곳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 '세계 개편안' 지역 경제계 등 반응 투자·고용 확대 '환영' 서민 대책 전무 '불만'

1일 정부가 세계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선 등에 대한 세계개편안을 발표하자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간의 반응이 엇갈렸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욕적이고 폭넓은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상의는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제의 현실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확대 등은 투자 분위기 조성 및 기업 활동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또 "다만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부세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 것"이라며 "이번 세계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세계개편안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연구인력개발 세제의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지원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의 기본목표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끊임없이 제기한 기업상속 관련 세부담에 대해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기업상속 요건완화, 기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경실련은 이날 세계 개편안에 관한 의견서를 내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만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전체 경제 수혜자 중 서민과 중소기업 비중이 높지 않은 점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대책이 없는 점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소비세제 개편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번 개편안의 문제로 꼽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시중銀 고금리 예금 '특판효과'?

7월중 총수신 7조원 이상 급증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수신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난 달 총수신이 7조원 이상 급증했다. 전월 증가분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원화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지난 달 말 현재 677조2천598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7조3천111억원(1.1%) 늘어났다. 이는 지난 7월 증가분 5천96억원(0.1%)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규모다.

은행별로 외환은행이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 판매 등에 힘입어 1조392억6천337원(3.7%)이나 늘었고 신한은행도 정기예금이 1조2천400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으로 3조2천689억원(2.8%)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정기예금이 1조2천711억원 줄었지만 요구불성 예금이 1조6천6천494억원(1.7%) 늘었고 기업은행도 1조349억원(1.1%) 증가했다.

은행들이 수신 확대에 영업력을 집중하면서 원화대출의 증가세는 소폭 둔화됐다. 지난 달 6개 은행의 원화대출은 636조8천901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7천137억원(1.2%) 늘었다. 전월 증가분 8조1천985억원보다 작은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은 301조1천318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9천479억원(1.0%) 늘어나면서 300조원을 돌파했지만 전월 증가분 3조1천663억원에는 못 미쳤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외환은행이 5천852억원(2.5%) 늘리면서 유일하게 2%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급증 ... 작년 2천억 적발

작년에 보험사기 급증 추세를 보여 금융당국이 적발된 금액만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작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2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 보험사기 혐의자의 경우 3만922명으로 15.6%가 각각 늘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종류별 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자동차 보험이 66.4%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사기 보험이 15.2%,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4% 순이었다.

사기 혐의자 기준으로 봐도 자동차 보험이 80.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0%, 생명보험의 보장사기 보험이 5.6%였다.

생명보험(393억원)에 비해 손해보험(1천652억원)의 적발금액이 큰 이유는 손해보험의 지급 보험금이 전체 지급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험계약자 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TPC메카트로닉스	공기압기 기술영업 남사원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9/04	062-955-2995
세신전자	경리/회계 업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05	061-394-4477
AIG손해보험	[AIG 순천 CS센터]제6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2-906-7632
호텔 프리도	(주)프리도관광호텔 사무관리(구매)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2-654-9999
경기합동경동택배	정규직 전산업무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1-399-2400
스타일엔진	소품물 물류 담당자 및 의류 촬영 해주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6	062-710-5220
더블원건설	지게차 운전기사 임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62-373-0428
동양생명보험	2008년 하반기 자산관리사 공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62-226-4904
대한생명보험	[광주/전남]생명보험 컨설턴트 신입 및 경력직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08	062-383-0494
동양하이테크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사원	대원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62-530-0086
대화증권	CNC선반, MCT(머신센터)조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9	062-972-6410
용프리아레스토랑	레스토링에 흥미를 가진 신체 건강한 남녀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653-4800
시에스넷	자동화개발, 기술영업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974-445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